



나는 라면을 만들었다

고현중 1-6 장승아

나는 ‘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그들이 배고플 때면 나는 항상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뿐이다.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제일 좋다고. 그런데 항상 그런 이들 옆엔 또 다른 이들이 있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한다. ‘뭐지?’ 내가 제일 좋다면, 근데 왜 주위에 있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걸까. 나는 꼭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가. 라면도 마찬가지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라면을 좋아하지 라면 속의 파를 좋아하진 않는다. 파는 오로지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재료’일 뿐이다.

생각해 보자. 파가 맛이 있어서, 파가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 장담하는데 옆에 아홉은 아니라고 답할 거다. 이로써 ‘파’는 라면을 빛내는 ‘장식품’일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파’가 마치 특정한 쓰임새로 쓰이는 ‘나’와 같은 처지인 거 같아서 난 도저히 파를 싫어할 수 없다. 흔히 ‘신분 세탁’이라고들 한다. 나는 언젠가 신분 세탁을 하고 말 것이다.

나는 이제 ‘계란’이다. 계란은 스스로 빛을 낼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몇몇 있다. 나는 안다. 그들이 나랑 가까이하는 이유를. 그 의미가 진정한지 가짜인지는 사실 다 티가 난다. 평소에 인사도 안 하던 다른 반 아이가 영어 문제만 보면 표정이 싹 바뀐다. 나는 눈을 딱 감고 도와준다. 개가 말한다.

“헐 고마워! 이제 복도에서 보면 인사하자!”

나는 ‘이제’라는 말이 거슬린다. ‘이제’가 언제일까. 대체 언제, 언제부터 인사를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말 이후로 우린 복도에서 눈을 마주쳐도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 난 또 생각한다. ‘이번에도 그냥 한 말이었구나.’ 진심인 줄 알았던 내가 바보다. 반면에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는 놈들이 있다. 대체 저게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다.

하루는 그놈들이 내 책상으로 와 말한다.

“이것 좀 도와줄래?” 하고.

평생을 도와주기에 길들여진 나는 익숙했다. 그러곤 답이 돌아왔다.

“고마워.”

이번엔 인사하자는 말이 없었다. 그 세 글자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인사하자는 거짓을 뺀 ‘고마워’ 한 마디가 괜히 혼자 착각하게 만드는 ‘인사하자’ 보다 백배 나았다. 아니, 좋았다.

그러곤 나도 이제 물어본다.

“나도 이거 좀 도와주라.”

그러면 친절히 설명해 준다.

‘아, 애가 원래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호감이 생긴다. 그렇게 그놈들은 내 친구가 되었다. 하나 거짓도 없는 ‘진짜 친구’. 그리고 나

는 계란이 되었다. 누군가에겐 아직 덜 익었고, 누군가에겐 벌써 다 익은 그런 계란이 되었다. 다 익은 계란은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음식으로 발전한다. 전에 나를 ‘파’로 대하던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어찌지? 내가 계란이 되어 버렸네? 심지어 완숙이야.”

또 언제부턴가 나는 라면수프가 되었다. 라면수프는 어떤 음식에 넣어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방향을 찾는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는 나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시간에 남의 시선까지 챙기는 건 무지 피곤하다. 그 후로 나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갔다. 일단 폰을 켜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 알고리즘은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 이거다!’ 그리고 나는 곧장 미용실로 달려갔다.

“무슨 머리로 잘라줄까?”

미용사 아줌마가 물었다.

“레이어드 컷이요.”

누군가에겐 익숙한 그 말이 그 당시 나에겐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나는 이로써 한층 나다워졌다. 다음은 쇼핑몰 앱을 켜다. 내 취향인 옷이 가득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그 택배는 나의 첫 택배였다. 비록 옷의 재질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주문하고 골랐다는 게 뿌듯해서 차마 버리긴 싫었다. 그렇게 나는 또 내가 되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다. 이상하다.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 분명 전에는 죽도록 미워했던 나를 ‘파’로 대한 개네가 이젠 사르르 용서되는 듯했다. 나를 알면 남이 보인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체감했다. 내가 나를 가

꿀 줄 알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공간이 생기니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다.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친해지자.”

“나랑 친구 할래?”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을 나는 끄지 않았다. 기분이 좋은 걸 떠나 날아갈 것 같았다. 이 말 한마디 받아내는 게 어렵다는 걸 아는 나는 그 친구들에게 깊고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곤 내 주위에 친구들이 꽤 많아졌다. 나도 개성이 생긴 거다. 개성 있는 라면수프가 된 거다.

내 삶에 나를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디엠으로 한 친구가 연락이 왔다.

“내 고민 좀 들어줘.”

그때의 나는 이 말이 ‘과’를 의미하는 말이 아닌 걸 알았기에 고분고분 들어주고 공감해 줬다. 끝으로 나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당부였다.

“응. 당연하지.” 내가 한 말이었다.

한참 후, 이제 나도 아무한테나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생겼다. 매일 밤을 울면서 잠들던 나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그 친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을 해본다.

“혹시… 내 고민 좀 들어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친구는 나에게 위로될 법한 따뜻한 말들을 나열하였다. 이로써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절친이 되었다.

나는 이제 ‘면’이 되었다. 누군가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친구, 라면에

없어선 안 될 주재료, 면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또 한 번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고, 더 완벽한 ‘정사각형 면’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늘 내게 말한다. 너는 친구 많아서 좋겠다고. 너무 부럽다고. 스스로에 대한 주접 같아 보이겠지만 정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나는 내가 ‘파’에서 ‘면’으로 발전하던 그 과정으로 라면 한 그릇을 만들어냈다. 내 삶은 이렇게 차곡차곡 나아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도 ‘파’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람들이 라면 한 그릇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라면 한 그릇은 그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 절대 남이 그 라면을 먹고 비하하거나 도로 뺏을 수 없다.

라면은 곧 인생이다. 나는 아직 좀 덜 익은 미숙한 라면이지만, 언젠가 더 많은 재료를 추가한 ‘다 익은 라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을 하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고. 나도 처음엔 모자란 인생을 살았다고. 지금의 내 삶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삶’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역시 노력 없인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말이 맞나보다. 오늘도 한번 우리말의 중요성을 알아간다.

